



# "The Story of Hong-An Kindergarten"

*written by Raonatti5th Vietnam*



## I .공식 활동: 흥안유치원 활동

- 혜리[Huong] “Lop Nha Tre I”
- 경필[Viet] “Lop Nha Tre II”
- 유진[Huyen] “Lop Mam”
- 새암[Nam] “Lop Choi”
- 수빈[Mi] “Lop La”

## II .비공식 활동: 프로그램, 만남

- YMCA 워커들에게 한국어 가르쳐주기
-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에서 프로그램 진행
- 한국어학과 학생들과의 만남
- 환경의 날 행사 다녀오기
- ‘홍콩 대학생들과 문화 교류의 밤’ 행사에 참석

## III . 5기 베트남 팀의 감성

- 우리 이럴 때 ‘행복해요’
- 우리 이럴 때 ‘힘들어요’
- 우리 이럴 때 ‘신기해요’



# 1. 공식활동

우리 팀은 4월 11일부터 6월 4일까지 총 8주간 호치민시 옆 공단지역 동나이시에 위치한 YMCA 유치원인 흥안 유치원에 봉사활동을 나간다. 유치원이 다른 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팀은 이른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먹고 아침 6시 50분에 호텔을 나선다. 유치원까지는 버스를 두 번 타야 하는데 버스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재미를 준다. 그리고 버스에 내려 15분을 걸으면 8시 15분에 유치원에 도착하게 된다. 유치원에는 총 5개의 반이 있어 우리팀원 5명은 각자 한 반씩을 맡아 보조 선생님이로 활동하기 때문에 유치원에 도착하여 아침에 헤어져 각자 반에서 활동을 하다가 점심시간에 모여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4시에 아이들의 하원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유치원을 나서며 하루 일정이 끝난다.

- lớp nhà trẻ I - 혜리
- lớp nhà trẻ II - 경필
- lớp mầm - 유진
- lớp chồi - 새암
- lớp lá - 수빈

# 웰컴투 NHA TRE 1

흥안 유치원의 가장 어린 친구들의 반!  
Nha Tre 1(유치원)에서 헤리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Nha Tre 1은 Anh과 An 두 명의 선생님과 3살짜리 23명의 아이들이 있다. 아직은 말을 잘 하지 못하고, 가끔은 말을 듣지 않고, 쉽게 잘 울지만 웃을 때는 누구보다도 가장 귀여운 아가들♡



요즘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 동요 율동, '올챙이 송'과 '사과 같은 내 얼굴'을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은 리듬감이 신나는 한국 동요를 무척 좋아하며 이제 3일 째밖에 되지 않았는데 노래와 율동을 곧 잘 따라한다. 역시 아이들의 학습능력은 최고!

## Introduce my children



**Ngoc Nhi**  
첫째는 별명을 가진 가장 귀여운 아가이지만 보면 호기심 가득한 꽤 어려운 일



**Quynh Anh**  
우리반의 가장 예쁜 새참대기 아가씨



**Bao Minh**  
동동한 두 볼이 매력적 나 의 모든 말과 행동을 따라하는 따라쟁이



**Cao Nguyen**  
가장 질생인 우리반 아가 하지만 친구들과 나를 잘 때린다



**Tâm**  
모든 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가장 예쁜 아가 우는 모습도 귀여워><



**Dang Khoa**  
재미있고 부끄러움은 아이 하지만 아제는 나랑 꽤 친해졌다



**Châu**  
항상 친구들을 먼저 챙겨주는 착한 아가씨



**Hiêu**  
웃을 때도 사라지지 않는 아가의 웃음이 모험하게 매력적인 아이

# LỚP nhà trẻ 2



11일부터 시작된 유치원 일정!

나는 3살 아이들을 맡기로 하였다. 처음에 코디네이터와 선생님들이 걱정을 하였다. 3살 아이들이 어려서 많이 울고, 때도 많이 부려서 남자에게는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역시나 모든 것들이 난생 처음 해보는 일들이었다. 밥을 먹고, 얼굴을 씻겨주고, 옷도 갈아입히는 등 여러 일을 했다. 처음에는 매우 낯설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서 나의 하루 일과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매일 새벽 6시에 밥을 먹고 50분에 출발하여 8시15분에 유치원에 도착하는 일정은 아침부터 무척이나 피로하지만 방안으로 들어서면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웃음으로 맞이해 준다. 바로 이순간이 유치원에서 활동하면서 기분 좋은 순간이다. 내가 유치원에서 하는 일은 항상 똑같은 일상에 지루함이 없지 않지만, 유치원 아이들이 이 지루함을 모두 날려준다. 하루에도 몇 번씩 화냈다가 웃었다가 피곤했다가를 반복한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하다보면 하루는 금세 지나가 버린다. 이대로라면 두 달도 금세 지나가버릴 것만 같다.



홍안유치원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đai** (다이)

우리 반 말쑥꾸러기 NO. 1이다. 좋아하는 음식은 남이 먹는 음식, 좋아하는 운동은 월담이고, 물놀이를 사랑하는 남자이다. 가끔 나는 이 반 아이들을 돌보러 온 것이 아니라 다이를 돌보러 온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만큼 다이에게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인다. 하지만 다이는 내 이름조차 모르는 것 같아서 가끔 내 가슴을 울리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정들어버린 다이. 정말 알 수 없는 매력의 소유자이다.

글/편집: 경필

미운 4살? 매력덩어리 4살!

# lớp mầm 이야기

글/편집: 유진

우리반은 베트남 나이로는 3살, 우리나라 나이로는 4살 반인 lop mam반이다. 우리 반은 총 50명의 아이들과 선생님이 세 분 계신다. 그리고 난 이반의 4번째 선생님 Co Huyen이다. 우리 반은 다른 반에 비해 선생님 한분이 더 많지만 낮잠 시간 때를 제외하고는 선생님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50명의 아이들이 한 반에 있다 보니 특히 아이들 사이 싸우고 울고 어떤 아이는 온종일 일하고 있는 나의 다리와 팔에 매달려있다. 또 말은 어찌나 안 듣는지 낮잠시간 이라고 누워라하면 누워 있다가 내가 등을 돌리면 1초 뒤에 일어나 뛰어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미운 4살이란 말이 떠오른다. 정신없는 하루의 연속이라 오후가 되면 진이 빠져서 너무 힘들지만 힘이 드는 만큼 느끼는 점도 많고 또 힘이 드니까 별거 아닌 것에도 행복해진다.

하루 일과	
8시~9시반	수업 (체조, 율동, 그림 색칠하기 등)
9시반~10시반	밥 먹기, 우유 마시기, 옷갈아 입기
10시반~2시	아이들은 낮잠시간 선생님들은 청소, 점심시간
2시~3시	간식시간, 세수하기, 머리 묶기
3시~4시	수업 (글 읽고 쓰기 연습, 율동등)

내가 가장 힘들 때는 바로 아이들 밥을 먹이는 점심시간!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입을 꼭 다물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아이를 붙잡고 밥을 먹여야한다. 만약 내 아이가 먹기 싫어한다면 나중에 먹으라고 내버려 두었을 텐데, 여기는 유치원! 밥을 먹일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있고 아이들도 많아서 한 아이만을 붙잡고 있기엔 버겁다. 하루는 아이가 밥을 먹기 싫다고 떼쓰며 울다가 결국은 조금 먹은 밥까지 토해버렸다. 그 아이를 보고 '아..내 아이였으면 이렇게 우는데 시간에 쫓겨 밥부터 먹였을까, 유아교육을 전공하지도 않는 내가 이 아이를 막 다루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힘이 빠져있었다. 그날 호텔로 돌아와 엄마랑 통화하다보니 답이 나왔다. '엄마 애들이 내말을 안 들어,, 어 근데 그러고 보니 말이 통해야 말을 듣겠네?' 라며 혼자 깔깔 웃었다. 예전에 유아관련 교양과목을 들으면서 아이들도 이해력이 있기 때문에 때리고 소리를 지르기보단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1000번 설명해주라는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난 아직 베트남어도 능숙하지 않아 우리 아이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기보단 '밥 먹어, 일어나' 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내 잘못도 떠올랐다. 그래서 요즘은 혼자 다시 베트남어를 처음부터 배우고 있다. 힘들니까 또 그 만큼 더 노력하게 되고 배우고 있는 것 같다.

아이 한번 키워본 적 없는 내가 50명의 아이들을 다루려니 힘이 든다. 하지만 초짜 선생님이라도 행복하기는 하다. 이 아이 저 아이 밥을 먹이느라 진이 빠져있을 때, 일찍 밥을 다 먹고 내게 다가와 자기 우유 한 모금을 주고 가는 예쁜 Bo 때문에 행복하고 밥 잘 먹는 우리 Nhat이 내 눈을 반히 바라보면서 밥을 잘 받아먹다 아이와 내 사이로 부는 바람에도 행복하다. 또 앉아 있는 나에게 다가와서 보보를 하고 가는 My와 Nhan 때문에 하루가 즐겁고 울던 아이가 내 품에 꼭 안겨 울음을 푼 그치고 날 안고 있을 때 언제 이렇게 많은 아이를 보듬고 안아 보겠냐는 생각에도 행복하다. 그날 하루 하루는 힘들고 '으이그 이 미운 4살들!'이란 생각이 들지만 또 이렇게 주말을 보내고 글을 쓰고 있노라면 '아 또 보고 싶다 내 새끼들'이란 생각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미운 4살 말쑥꾸러기 lop mam 아이들! 하지만 또 금세 날 미치도록 보고 싶게 만드는 lop mam아이들과 함께 나의 23살 4월은 지나가고 있다.





# “Lớp Chồi”

7시부터 아침수업과 아침식사로 하루를 여는 만 4살 반 ‘Lớp Chồi’. 아기들의 일정은 대충 이렇다.

- 08:30am-09:30am : 글씨쓰기연습이나 색칠공부, 또는 그림그리기를 통한 학습시간
- 09:30am-09:50am : 학습마무리와 노는 시간 약 10분(친구들과 어울리며 장난감 가지고 놀기)
- 10:00am-10:30am : 점심시간, 두 세 그릇씩 먹을 정도로 아이들은 활기왕성하다.
- 10:30am-10:50am : 우유를 마시고 미리 준비해 온 여벌의 옷으로 갈아입는다.
- 10:50am-02:00pm : 아이들은 가장 더울 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통해 오후수업을 준비한다.
- 02:00pm-02:30pm : 기상! 잠자리 정돈 후 정신을 차리기 위한 세수
- 02:30pm-03:00pm : 오후 간식. 3시간동안 낮잠을 잤으니 얼마나 배고프라
- 03:00pm-03:45pm : 오후수업(글씨쓰기 혹은 노래배우기로 수업이 진행된다)
- 04:00pm- : 하원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던 유치원과 아이들이었지만 지금은 내 집인 듯 내 아들 딸인 듯 자연스럽게 좋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내 성격 탓일까, 말썽을 피워도 밉지가 않다. 가끔은 나이에 맞게 장난꾸러기가 되어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 선생님들의 말을 잘 듣고 하는 것에 집중을 잘하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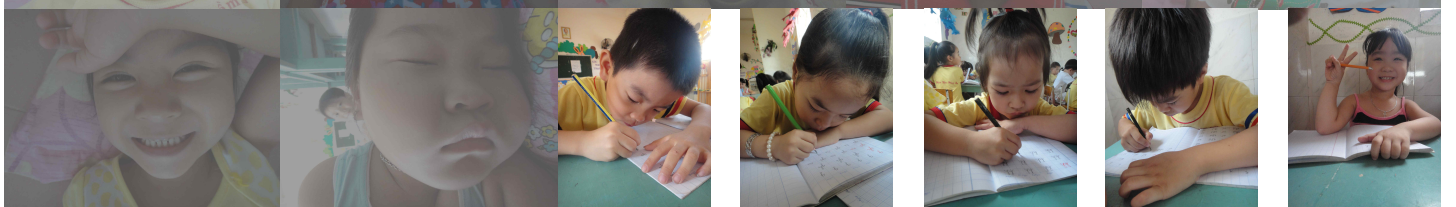
점심시간에 밥을 덜어주면 고맙다고 건네는 그 한마디가 나에게 하루 종일 힘이 된다. 아침에 갈 때마다 다 같이 내 이름 부르며 환영해 줄때는 그야말로 짜릿하다. 지금하기엔 웃기는 소리겠지만 벌써부터 베트남을 떠나면 이 아이들이 그리워질까 걱정이다. 물론 서리가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살 수도 있는 삶이었지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우리 반에는 선생님이 두 분 계신다; Cô Thuyền과 Cô Hằng. 넘치는 카리스마로 아이들을 지도하시며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 수업시간에는 말을 걸기가 무서울 정도로 카리스마가 넘치지만 점심시간에는 친구처럼 대화해 주셔서 참으로 편하다. 이 두 분 때문에 유치원 생활에 재미를 더하고 있는 것 같다.

재미있다. 소중한다.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할 수 없었던 경험하기에 더욱 소중한다.

Hong An Nha Tre에서 Thay Nam이 하는 일!

Lau Nha, Quet Nha, Rua Muong, Xep Banghe, Be Com, Viet cho em be, Be nuoc, Choi!



# Lớp Lá (5-6세 반) 이야기

**반 이름** : Lớp Lá

Lớp ‘반’, Lá ‘잎사귀’. 우리말로 하면 ‘잎사귀 반’이라는 뜻.

**구성원** : 쌤들



**Cô Trâm.** 천사미소, 예쁜 목소리로 아이들을 다스리는 분. 4월을 끝으로 유치원을 떠나서 대학교를 다니신다고 합니다. 만나자마자 이별.....T.T



**Cô Lién.** 따뜻한 사랑의 매와 아이들을 다스리는 분. 아이들 공부지도를 담당하십니다. 나에게도 덩으로 베트남어를 가르쳐 주십니다.

5-6세 45명, 4세 3명, 7세 1명



**혼자서도 척척!** 책상정리, 수건빨래, 세면대 청소까지 다섯 살 박이 아이들이 스스로 다 한답니다~



**Cô Mi!** 글씨를 쓰다가 틀리면 요렇게 손을 들고 “꼬미”하고 저를 부릅니다~ 그럼 지우개를 들고 가서 틀린 곳에 부비부비 ㅋㅋㅋ





## II. 비공식활동

우리팀원의 이번 한 달간의 공식 활동은 흥안 유치원에 나가는 일이다.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는 팀원과 코디네이터와 이야기를 통해 정해진 라온아띠 활동 이외에도 남은 주말, 평일을 이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알차게 보내고 있다.

- YMCA 워커들에게 한국어 가르쳐주기
-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에서 프로그램 진행
- 한국어학과 학생들과의 만남
- 환경의 날 행사 다녀오기
- '홍콩 대학생들과의 문화 교류의 밤' 행사에 참석

### "간단한 한국어 가르쳐주기"

한국인으로서 타지에서 쉽게 다른 이들에게 재미를 주며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본 결과 모국어인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아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곳에 사는 친구들이 사소한 단어들을 한국말로 어떻게 말하는지 궁금해 하는 것이 잦아지며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알려주게 되었다. 자음과 모음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기엔 내 능력도 부족했고 습득하는 것도 오래 걸릴 것 같아 친구들이 물어본 취지에 맞게 자주 쓰는 말과 쉬운 말들을 알려줬다.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잘 가요, 또 만나요" 등 우리와 헤어지며



쉽게 할 수 있는 말들 하나하나를 배워가기 시작했다. 가르친 대상으로는 베트남YMCA에서 일하는 청소년 workers와 유치원 선생님 몇 분이다. 일하는 친구들은 약 15명 정도 된다. 큰 도움일지 아닐지는 한국어를 배우는 당사자들이 결정하겠지만 한국어를 가르쳐줌으로 더욱 가까워지고 재미를 찾는 것 같아 보람차다.

#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에서 프로그램 진행



글/편집: 경필

학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짱의 친구를 통해서 안 기관에 주말에 우리가 짧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서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 이었다.

우리의 베트남어 공부가 끝나는 주말에 계획이 잡힌 프로그램. 공부한 베트남 어도 아이들에게 쓰고 프로그램도 기획해서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대상은 12~15세 아이들이었다. 처음에는 약 25명을 예상했지만, 참가자는 15명 이었다. 처음에는 적어서 실망감이 컸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훨씬 수월하였다.

사실 프로그램의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코디네이터 짱의 도움이 매우 컸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순간에도 짱을 제외하고 5명의 자원봉사자가 추가로 와서 우리의 프로그램을 도와주었다. 우리가 학교에 한 봉사활동보다 우리가 봉사활동을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봉사를 더 받은 것 같아 부끄럽고, 발걸음을 해준 코디네이터와 자원봉사자들에게 매우 감사했다. 얼마나 있어야 베트남에 받은 만큼 베풀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가 학교에 한 봉사활동보다 우리가 봉사활동을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봉사를 더 받은 것 같아 부끄럽고, 발걸음을 해준 코디네이터와 자원봉사자들에게 매우 감사했다. 얼마나 있어야 베트남에 받은 만큼 베풀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Socio Science University

한국어학과 만나요 귀요미

글/편집: 헤리

4월 2째 주 일요일, 코디네이터 Trang을 통해 사회과학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과의 모임에 초대를 받아가게 되었다. 이번 모임은 저번과 달리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만든 K-club(2주마다 한국의 문화 중 한 가지를 정하여 모임이 열리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음.) 모임에 참가하는 것이었다. 예상은 했지만 한국인 학생들은 우리가 전부였고 한국문화를 공부하러 온 베트남 학생들은 약 30여명에 달했다.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참여하기로 한만큼 열심히 도와주기로 했다. 모임의 주제는 '인사법'으로 한국의 다양한 인사법을 공부하는 것이다. 우리는 각각 나뉘어 다섯 그룹으로 앉아 한국어학과 학생들의 질문을 받으며 도움을 주었다. 3학년년부터 1학년 학생들까지 있어 실력의 차이는 상당했지만 한국어를 넘어 한국에 대한 관심은 모두 뛰어났다. 그리고 간단한 한국말을 말하는 게임까지 이어졌다. 약 2시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번째 만남은 짜인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어 꽤 알차게 진행되었던것 같다. 다만 일정이 변경 되면서 우리가 한국어를 알려주게된 점은 아쉬웠다. 미리 예상했다라면 준비를 통해 더 도움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에 이루어질 한국어학과 학생들과는 이번과는 다른 색다른 만남을 기대한다.



# 환경의 날 행사

글/편집: 유진



베트남의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의 날’행사가 4월 17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행되었다. 부스별로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 되었고 무대에서 재활용으로 만든 패션쇼가 진행되는 가하면 건물 안에서는 재활용품으로 만든 생활용품과 장난감 등이 전시되었다. 오전에 한국어 학과학생을 만나고 오후에 환경의 날 부스에 도착했는데 첫 번째 부스에서 3월보고서에 인터뷰도 했었던 우리의 베트남어 선생님 ‘타오’를 우연히 만났다. 졸업한 후 사회운동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던 타오 선생님, 여기서도 자신의 소신대로 부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타오와 반갑게 인사를 한 후 부스를 본격적으로 돌아보기 시작했다. 어떤 부스에선 재활용품 분리수

거 운동에 대해 설명을 하며 페트병 2개를 가져오면 과자 한 봉지를, 전구 2개를 가져오면 화장지 하나를 주는 등의 행사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부스에선 쓰지 않는 물건과 옷들을 바자회를 열고 있는 등 부스별로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었다. 부스를 다 돌아본 후 우리 팀원은 이제 집에 돌아가자며 등을 돌려 걷는데 입구 쪽에 건물이 시원해 보여서 들어갔는데! 그곳은 재활용품으로 만든 생활용품과 장난감을 전시해 놓은 곳이 있었다. 우리가 유치원 활동을 하면서 ‘재활용품으로 교구 만들기’가 우리에게 요구되었는데 그곳에서의 전시 관람은 우리의 유치원 활동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되어 주었다. 여러 행사를 둘러보는 것도 재미가 있었고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쁜 자리였다.

## Cultural Night (문화의 밤)

City University of Hongkong – YMCA of Vietnam

글/편집: 수빈

홍콩 대학생들이 베트남에서 보낸 워크캠프의 마지막 스케줄은 YMCA 건물에서 열린 ‘Cultural Night(문화의 밤)’이었다. 베트남 YMCA에서 베트남 문화를 소개하고, 홍콩학생들이 홍콩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에 우리도 살짝 참가해보았다.

홍콩 학생들은 노래와 율동, 댄스를 했고, 베트남 YMCA는 베트남 가요를 불렀다. 우리도 장기자랑(?)을 준비했는데, 인터넷에서 ‘태권무’ 동영상을 검색해서 연습했다. 어설플 태권도 동작이었지만 홍콩 친구들이 박수를 쳐 주어서 감사하다. 또, 파견 전 국내훈련 때 배웠던 오키나와 합주곡 ‘Always with me’를 연주했다. 이 부분은 특히 사무총장님, 교수님 등 어르신들이 좋아하셨던 듯.

무엇보다 좋았던 건 우리의 베트남어 공부를 도와주었던 (베트남인)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얼굴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었던 것이다. Hùng은 그 날 cultural night의 MC를 맡았고, Chúc은 베트남 문화를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무더운 날씨를 피해서 해가 지고 나서야 YMCA 옥상에 가서 태권무를 연습했다.



무더운 날씨를 피해서 해가 지고 나서야 YMCA 옥상에 가서 태권무를 연습했다.



## Ⅲ. 베트남팀의 감성

이 곳 베트남에 와서 생활한지도 두 달. 다섯 명의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한 팀을 꾸려 나가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개인의 성격과 취미, 특기, 그리고 관심사는 다를지 몰라도 새로운 땅 ‘베트남’에 와서 느끼는 감정은 비슷한가보다. 이곳에 와보지 않고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맛보기처럼 들려주기 위해 적어보았다.

- 우리 이럴 때 ‘행복해요’
- 우리 이럴 때 ‘힘들어요’
- 우리 이럴 때 ‘신기해요’

# 우리 이럴 때 행복 해요!

## In Kindergarten

요즘 우리의 주 활동은 유치원 선생님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노래와 에어로빅을 가르쳐 주는 일, 청소, 설거지, 그리고 배식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외국인들 매일 만나는 것도 익숙하지 않을 텐데 아이들은 노력하는 우리에게 보답이라도 하듯 웃음으로 답해주곤 한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이 실수를 해서 혼이 날 때도 웃는 모습을 보면 혼내기란 쉽지 않다. 이제 약 3주가 지나니 처음에 낯을 가리던 아이들도 어느새 우리 옆에 다가와 놀아달라고 조르곤 한다.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빨라서 이해하기 힘들었던 아이들 말도 조금씩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유치원 생활에 점점 적응하게 되었고 이런 생활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또한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피곤한지 걱정해 주고 아침밥도 챙겨주신 덕분에 우리는 유치원에서 에너지가 넘칠 수 있다. 덤으로 동나이는 호치민보다 음식 값이 싸서 매일 마시는 Tra sua(Bubble tea)는 우리의 비타민 음료!

## In BUS

버스는 우리 생활에서 유치원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하루일과 중에 하나이다. 아침에 유치원까지 한 시간 반 그리고 돌아올 때 한 시간 반, 무려 세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다닌다. 고단할 것만 같은 버스도 행복한 순간들이 있다. 우선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 가자마자 버스가 온다. 이럴 때 행복지수는 배가 된다. 그런데 이 버스에 자리가 있으면 행복지수 3배! 여기에 에어컨까지 나온다면 그날은 운수좋은날:) 또 3주 째 같은 노선을 타고 다니다 보니 버스보이, 버스걸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경우도 많다. 외국인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마주치는 것도 버스를 타고 다니며 꽤 즐거운 일이다.

## In Life

우리는 3월부터 YMCA 일하는 worker들과 시간이 날 때면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다. 여러 기수의 아미를 만나서인지 외국인에게 부끄럼 없이 다가오는 worker들 덕분에 더 빠른 시간에 친해질 수 있었다. 또 우리가 재미로 알려준 한국어도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사용해서 우리를 뿌듯하게 한다. 그리고 이번 부터 호텔이 바뀌면서 YMCA에서 가까워지고 좀 더 번화가로부터 떨어진 마을에 살고 있다. 외국인이 신기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3월 동안은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만 해도 모두 우리를 쳐다볼 만큼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단골슈퍼, 단골 자전거 수리점, 단골 카페 등이 생기면서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먼저 말도 걸어주고 우리가 인사를 하면 웃으면서 맞아 주시곤 한다. 베트남 생활도 이제 2달이 지나갔다. 처음보다 늘어난 베트남어에 우리에게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도 부쩍 늘어서 3월간 공부한 베트남어에 보람도 느끼고 기쁘다. 그리고 지난간 시간만큼 우리는 호텔 가족과도 우리에게 맛있는 것이 생기면 나눠주고 우리도 작게나마 보답을 하면서 친분을 쌓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매일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주는 Co hoa의 요리는 우리가 베트남 음식을 사랑하게 만들어 준다. 이곳의 열대과일들은 한국보다 다양하고 더 싼 가격 덕분에 매일 다양한 과일을 식사 때마다 맛볼 수 있어 베트남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

## In Our team

팀원들에게 자리 양보하기, 팀원들이 들어올 때 문 잡아주기, 팀원들 빨래 개어주기, 팀원들을 웃겨주기, 팀원들을 칭찬하기, 팀원들 가방 들어주기, 팀원들 크로스 빨아주기.....가장 사소한 행복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소한 행복을 주는 팀원들 Yêu!(사랑해)

## So...

지금까지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이라는 말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베트남의 호치민,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것일지 모릅니다. :)

# 우리 이럴 때 **힘들** 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2달간 베트남에 지내면서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LET'S GO**

2달 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처음 도착한 베트남은 후덥지근한 날씨와 함께 텅텅한 공기가 우리를 감싸 안았다. 처음 보름 정도는 날씨와 공기에 적응하는데 애를 먹었다. 더운 날씨로 지치고, 텅텅하면서 탁한 공기는 우리의 목을 아프게 하였다. 다행이도 베트남에는 오침이 있어서 지친 몸은 잠시 쉬어갈수 있었고, 탁한 공기는 마스크로 버틸 수 있었다. 이곳 호치민의 기온은 대략 30도 중반으로 5월 중순까지는 건기로 비가 잦지는 않지만, 종종내리는 비는 많은량을 쏟는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사이공강은 강둑이 없어 비가 오면 빈번이 도로를 물에 잠기게 한다.

이번 달은 우리들이 유치원을 다니기 위해 날마다 대중교통(버스)를 이용한다. 버스의 노선은 예상이상으로 잘 되어 있지만, 운영 시스템은 약간 부족한감이 있다. 예로 15분에 한 대씩 오는 버스가 가끔은 1시간을 기다려야 오는 경우도 있다. 요금은 각 버스에 따로 요금을 받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하다 보니 간간히 실수도 하고, 약간의 불편함도 있다. 그리고 요금은 정해져 있지만 약간의 가격 흥정도 가능하다. 버스는 대부분 붐비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원치 않는 스킨십이 발생하기도 하고, 도난도 간간히 일어나 버스에서는 현지인들도 가방을 앞으로 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끔 자리에 앉더라도 옆에 아저씨가 앉았다면 껌벌납일 확률은 70%이상이며 버스에서 흡연을 할 확률을 10%내외이다. 버스에서 흡연은 금지 되어있지만 버스가 정류장에서 쉴 때(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5~10분 정도 쉰다.) 기사님이나 몇몇 사람들이 피기도 한다.

어느 외국이나 똑같겠지만 의사소통은 언제나 힘들다. 특히나 한국에는 없는 성조가 항상 걸린다. 단어를 알아도 정확하게 읽기가 쉽지가 않다. 이 때문에 베트남어는 배우기 힘든 언어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한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과 약속을 하면 베트남 사람들은 약속에 늦는 경우가 많은데, 교통이 불편한 이유도 있겠지만 이 곳 사람들은 항상 여유 있는 마음가짐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하지만 이 여유로움 뒤에 반전이 있었으니, 바로 새치기이다. 도로를 10분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운전 중 서로에게 양보는 찾아보기 힘들다.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자주 연출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줄을 서있는 경우에도 아무렇지 않게 새치기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줄서 있을 때 공간을 보이거나 잠시 한눈을 팔면 새치기를 당하기 쉽다. 때문에 줄을 설 때에는 앞에 사람이 더 이상 끼여들 수 없게 딱 붙어서 서야하며 측면에서 오는 사람을 경계해야만 새치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일상은 매우 지루하다. 그리고 다른 5명이 모여서 24시간을 함께 살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가끔 회의가 길어지는 날에는 피곤함이 두 배가 된다. 하지만 이런 일 또한 젊기 때문에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고생이라 표현하기엔 너무 작은 것들이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를 이겨 나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더 큰 일을 준비하고 있음을 느낀다.

# 우리 이럴 때 **신기** 해요!

## 우릴 가만두지 않는 사람들~

4월 주요 활동 장소인 유치원으로 가는 길. 매일 아침 베트남 사람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우리도 나가는 만큼 버스는 엄청나게 붐빈다. 우리나라 같으면 출근길 버스 혹은 지하철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달라붙지 않으려고 몸을 움츠릴 텐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옆 사람에게 자기 몸을 의지(?)한다. 운 좋게 자리가 나서 앉더라도 창쪽이 아닌 복도쪽 좌석이라면 팔걸이에 다른 사람의 엉덩이나 가방이 올려져 있을 상황은 각오해야 한다. 이리저리 휘청휘청 거리는 버스에서 이렇게 사람들은 우릴 가만히 두지 않는다.

종점이나 터미널에서 10분 정도 버스가 정차할 때에는 ‘행상’들이 우릴 가만두지 않는다. 음료수, 사탕수수즙, 바게트빵 등 간식거리를 주로 파는데 한 버스에 보통 서너 명의 행상들이 올라와서 우리의 정신을 빼 놓는다. ‘사지 않는다면 눈길을 피해라!’ 일단 눈이 마주쳐버렸다면 그 물건을 사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기위해 5초 정도 귀찮아진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도 가끔 마주친다. 무섭기도 하고... 돈을 줘야 되나? 말아야 하나? 안 줘도 되나? 하는 고민은 항상 된다. 가만히 있다가도 외국인인 우리가 나타나면 손을 쓰옥- 내민다.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도 앞에서 계속 손을 내밀고 나를 뺀히 쳐다보기 때문에 정말 난감하다. 더 힘든 점은 주위 사람들(현지인)도 같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직 요령을 터득하진 못했다.

‘외국인’이라 신기해서 그런 건지, 원래 거리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말을 잘 거는 건지... 아무래도 전자인 것 같다. 동네 슈퍼, 카페, 식당, 버스 등 우리에게 많은 눈빛과 관심과 질문이 들어온다. 처음에는 그런 열띤 반응이 재미있기도 하고, 배운 베트남어를 써먹고 싶기도 해서 물어보는 질문에 열심히 답했다. 그런데 ‘왜 나만 대답하지?’라는 의문도 들었다. 우리의 나이, 전공, 사는 곳, 베트남에서 하는 일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다 말했지만 같이 대화를 나눈 사람에게 우리가 질문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냥 그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기만 하는 대화라면... 가끔은 ‘Do you speak English?’ 또는 ‘Do you speak Vietnames?’ 라는 질문을 받으면 단칼에 ‘No’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 지저분하다고? **별로~ 막상 내가 해보니 편해요!**

집에서 맨발로 다니는 게 익숙한 우리들. 그런데 베트남은 집이 아닌 그냥 건물 안에서는 맨발로 다니는 경우가 많다. 호치민 YMCA 건물에서도 보통 신발을 신고 다니지만 그냥 없이 다니기도 한다. 그걸 보고 처음엔 발이 더러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했지만 신발은 대충 발밑에 놓아두고 가까운 거리(예를 들면, 옆방에 휴지를 가지러 간다든가)는 맨발로 간다. 더운 날씨에 신발을 챙기는 게 귀찮을뿐더러 신발 밑창보다 타일로 된 바닥이 훨씬 시원하기 때문이다.

4월 마지막 주말, 우리는 dam sen 이라는 워터파크를 갔는데 갖가지 음식물(찌꺼기)들이 바닥에 이곳저곳 너부러져 있었다. 우리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맨발로 걸었다. 3월 첫째주에 그곳을 갔더라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그곳을 걸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나중에 들었다.

조금 지저분하다고 느껴졌던 것들... 막상 한 번 해보면 아무렇지 않다. ‘깔끔’ 떠는 것보다 그냥 익숙해지는 게 편한 것 같다. 또 그렇게 익숙해지는 우리에게 우리가 신기하다.

## 이럴 때 신기해요, ‘**자질구레**’~

- 모든 음료수에 얼음을 넣어 마시는 것 (심지어 맥주에도)
- 무늬만 서점 (간판은 분명 서점인데 1층은 슈퍼마켓, 2층만 서점이다)
- 남자들이 뽀얀 안 입어요 (더운 날씨 때문인지 뽀얀을 걸치지 않은)
- 낮잠시간 (모두들 한낮에는 잔다. 덕분에 점심 먹으로 조금 늦게 나오면 문면 식당 찾기 힘들어진다)
- 대학생들도 교복을 입어요 (교복 입는 날짜, 사복 입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도 해요)

*To be continued...*

